

지역 소식통

부안군, 중동발 위기 대응 민생안정 캠페인

부안군은 18일 최근 중동 경제 불안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과 가파른 물가 상승세에 대응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지키기 위한 민생경제 및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공무원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부안지부 회원들이 함께 고물가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상인들의 자발적인 가격안정 노력과 주민들의 합리적인 소비 동참을 호소했다.

군을 이날 캠페인을 통해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가격 표시제 이행, △불공정 상행위 금지, △정직한 계량 준수 등을 중점 홍보했다. 특히 피켓에 바가지요금 신고번호(☎063-120/1330)를 명시해 불합리한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신뢰받는 상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내달 6일까지 개별

공시지가 열람 · 의견 접수

정읍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총 32만 874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공개하고 18일부터 4월 6일까지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의견 접수를 진행한다.

가격 확인은 시청 공시지가 상황실이나 토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가격 열람' 누리집(<https://www.realtyprice.kr>)을 통해서도 24시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산정된 가격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시청이나 주민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주변 토지와 가격 균형 여부 등을 감정평가법인과 함께 철저히 재검증하고 정읍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 뒤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기본사회 선도도시로 도약

부안형 신바람 기본사회 비전 선포식... "부안이 가장 앞서 기본사회 비전 실현"

부안군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인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해 전국에서 가장 앞서 나갈 것을 공식 선언했다.

실제 군은 18일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부안형 신바람 기본사회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국가 정책 기조를 지역 특성에 맞춰 구체화한 기본사회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 소속 기본사회위원회 강남훈 부위원장(장관급)이 직접 참석해 군의 비전 선포에 힘을 실었다.

강 부위원장은 군 기본소득위원회 민간위원으로도 활동하며 부안만의 정책 구상과 실행 전략에 지속적으로 조언해 온 인물이다.

이번 방문은 군의 정책이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로드맵과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특히 이번 선포식은 최근 전북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부안군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인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해 전국에서 가장 앞서 나갈 것을 공식 선언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지방이 먼저 움직이면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

지를 군이 현장에서 직접 증명해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 '중동사태 경제위기 선제대응' 총력

비상경제 대응 전담 TF 3팀으로 구성 · 첫 TF 회의 개최... 분야별 맞춤 대응 나서

고창군이 김영식 부군수를 단장으로 '비상경제대응 전담 조직(TF)'을 지난 18일 구성하고 첫 TF회의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고창군은 중동상황 긴장 고조로 인한 원유 공급 불안에 따른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분야별 맞춤 대응에 나선 방침이다.

전담 TF팀은 민생물가안정팀, 석유 가격안정화팀, 농특산품수출지원팀, 소상공인지원팀으로 구성되었다.

각 분야의 담당팀은 중동상황 대응



방안, 현장 애로 사항 등을 파악하여 선제적인 대응에 주의를 기울였다.

주요 대책으로는 공공요금 인상억제, 농축산물·생필품 등 생활물가 동향 점검, 고창사랑상품권 상시 할인판매 지속 운영, 착한가격연구소 인센티브 지원 조기 추진 등으로 민생경제 안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관내 판매가격 급등 주유소를 집중·점검하고, 농특산품 수출사업체 대상으로 해외마케팅·판촉행사비 육성 지원, 현재 지원 중인 운전자금 특별보증 등 적극 홍보로 운영자금 부담 완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 대응... 주민 건강 보호 최선

고창군이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을 강화한다.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나쁨 일수(36μg/m³)가 가장 많은 시기로, 고창군은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총력 대응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며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해 왔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고

프라인 홍보 △집중관리도로 비산먼지 제거 강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 등이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기존 정책과 더불어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 강화와 취약계층 보호,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산업 분야에서는 민간 미세먼지 불법행위 점검원을 활용해 대기배출시설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수

시로 점검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생활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필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다중이용시설의 환기 및 공기정화설비 적정 가동 여부 관리도 강화한다.

또한 농촌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불법소각 방지를 통해 불법소각을 상시 단속한다.

/고창=김영식기자

노미경 여행작가, 정읍 홍보대사로 위촉

지역 관광 활성화 · 도시 브랜드 홍보 나서

정읍시가 세계 곳곳을 누비며 활약 중인 정읍 출신 유명 여행작가 노미경 씨를 새로운 시 홍보대사로 위촉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18일 오전 시의회 관 구절초 회의실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미경 작가의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특히 이번 위촉식에서는 정읍시 관광발전위원회 위촉도 함께 진행돼 노미경 작가의 폭넓은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

노미경 작가의 홍보대사 임기는 오는 2028년 3월 17일까지 총 2년이며, 앞으로 정읍의 숨은 명소와 다채로운 매력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읍이 고창인 노미경 작가는 케이비에스(KBS) '아침마당'과 엠비시(MBC) '과워매거진' 등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친숙한 인물이다. 지난 2017년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이듬해 표창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에는 한국과 볼리비아 간 여행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볼리비아 정부로부터 공로 표창을 받는 등 국제적인 감각과 선한 영향력을 두루 갖추고 있다.

지난 2024년 9월 정읍시 평생학습관 개관 기념 초청 특강으로 고향 시민들과 교감하기도 했던 노미경 작가는, 오는 4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영상 촬영을 시작으로 시의 각종 핵심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차향다원, 고객 맞춤형 족욕 서비스 도입

방문객이 직접 허브 오일 선택 가능... 맞춤형 힐링 선사

정읍시 임산물체협단지 내 차향다원 족욕 카페가 방문객의 당일 기분과 건강 상태에 맞춰 직접 허브 오일을 선택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족욕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

기존에 단일 종류로만 제공되던 오일 체험에서 벗어나, 이제는 심신의 안정을 돕는 라벤더와 집중력·혈액 순환에 좋은 로즈마리, 상쾌한 활력을 부여하는 스피어민트 등 총 3종의 허브 오일 중 하나를 골라 나만의 온전한 휴식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서비스 개편과 발맞춰 족욕에 사용되는 허브류를 단지 내 향기 온실에 새롭게 식재해 주변 환경도 한층 싱그러움에 정미했다.



방문객들은 따뜻한 족욕으로 쌓인 피로를 풀 뒤 온실을 거닐며 지나가는 허브를 직접 눈으로 보고 향기를 맡는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치유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 예약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누리집(홈페이지)을 확인하거나 산림휴양시설팀(063-539-5778~5779)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지역 상생 업무협약 체결

부안군은 18일 부안예술회관에서 열린 부안형 신바람 기본사회 비전 선포식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자동차고등학교, 한국해상풍력(주)와 함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지역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남권 해상풍력 시범사업(400MW)의 안정적 추진과 풍력 산업 인재 양성, 이익공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전북자치도와 군은 인

허가 및 행정 지원과 지역인재 육성 및 채용 연계,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자동차고등학교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풍력 관련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해상풍력은 본사와 운영센터 등 인프라 구축, 지역인재 채용 노력, 지역기업 참여 확대 및 이익공유 등 사회적 환원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